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천만군민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신 불멸의 업적

혁명적사상봉세의 불멸의 빛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나가는데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75(1986)년 7월 1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우리 사상교양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훈련시켜주기 위한 고귀한 지침을 마련한 기념비적 문헌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의거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있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운동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구로 나선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천만군민을 영도자와 사상과 승결, 발전음을 같이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참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불멸의 혁명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성장해온 나날이었다. 일찌기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사상과 신념의 승리의 역사로 빛내이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였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전의를 떨쳐나가는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흔들림없이 당을 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뜻뜻이 걸어올수 있는것은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본분히 용이하고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에 근본원인을 두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우고있다. 5대교양사업이 강도있게 벌어지는 속에서 천만군민이 투철한 혁명보위정신과 견결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을 지니고 김일성민족의 불멸의 업적을 수형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천만군민의 일상생활을 본분히 다지신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정치사상강국의 존엄은 우리 조국의 제1국력이다. 수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승결한 도덕의리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군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보로 된다.

일찌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용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군민을 단결의 열정을 깊이 전제하고 사상교양사업의 출발적기초와 원칙, 내용을 철저히 주체사상교양으로 일관시켜나간다는 것을 혁명적 전설을 영도하시는 바르신의 속에서도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과 사상교양자료들을 몸소 보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특히 백두산지구를 혁명전봉투의 대진당으로 훌륭히 꾸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수형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근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주체형의 불멸의 피안이 흐르게 되었고 수령의 사상과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신인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누구도 흉내낼수 없고 가질수 없는 최경의 무기로 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버리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영도자와 열연적투쟁을 이룬 천만군민의 혼연일체는 절대불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경축대회장들마다에서 울려 퍼진 환호성은 천만대오를 흘러도 영도자의 두리에 천정만경의 생세를 이룬 우리의 일심단결을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절대적우월성은 바로 사상의 우월성에 있으며 천만군민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바로 우리 당의 불멸의 힘의 원천이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길에 앞장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전체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간직할 사상의 강자로 훈련시켜주시는 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주체사상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특별히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 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신념이다. 신념으로 걷는 길은 혁명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며 신념을 더욱 억세게 버려주는것이 바로 사상교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사상중시의 력사를 아로새겨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적각각오를 심장깊이 새기도록 이끌어온 영도자와 정력적인 영도의 자욱은 《사회주의는 광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휘방은 허울썩수 없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도 비껴있고 신현막물만을 찾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투철한 계급적각각오를 심장깊이 새기도록 이끌어주시는데도 어려웠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천만군민을 다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고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활로, 생명으로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불꽃이 내리워질 때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불꽃이 조강도 피어지지 않고 세기를 이어 더욱 세차게 휘날리게 된것은 천만군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년을 헤쳐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활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아무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다고 하여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정적을 결사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혁명

신념이자 승리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준 원수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고있는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길에 앞장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군민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신데 있다.

주체는 애국이고 애국은 주체이다. 천민의 심장에서 불타는 주체의 피는 애국의 피이고 천만이 높이 든 주체의 기치는 애국의 기치이며 천만이 폭풍과 격랑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주체의 항로는 애국의 항로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벌리는 모든 투쟁은 주체로 일관된 애국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조국 나라에서 사회주의불꽃이 조강도 피어지지 않고 세기를 이어 더욱 세차게 휘날리게 된것은 천만군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년을 헤쳐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활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아무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다고 하여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정적을 결사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혁명

위대한 장군님께서 훌륭한 수형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대일과 대태손은 누벼갈 우리 인민의 행복찬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추분 산, 추분 들이랑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었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은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곤 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명술복은 오늘날도 불멸의 업적을 천만군민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신데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천하제일강국을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기세차게 솟아오르고있다. 온 나라에 타만지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속에서 누구나 만리마속이 되어 당 7차대회 결정판권을 위한 총정의 200일 전투에서 남미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지한 지역자국의 창조물들과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승전포성은 우리 천만군민의 애국성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전진하는 수천수만의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어나가는데서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울 령 회